
나무 이야기

서 정 수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겸임교수/이사)

∴ 전나무 이야기

전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형이 수려한 상록침엽수로서, 소나무 외 잎갈나무, 잣나무 다음으로 중요한 임목으로 옛날에는 가지에 울창한 숲을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양재로서 베어져 옛날만은 못하다.

전나무를 종목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회목이라 하고, 일본에서 회(檜)라고 쓴 것은 “하노끼”라고 읽고 전나무가 아니라 편백을 이르는 이름



이다. 중국에서는 전나무의 수관이 우산을 편 듯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흡사 풍마(風馬)가 질주하는 모양 같다고 하여 포마송이라고도 하며, 음이 같은 포마송으로도 부른다.

전나무의 재목은 더위에도 썩지 않는다고 하여 관 재료로서 중히 쓰였으며, 건축재료로 곧고 크게 자라므로 사찰이나 궁궐, 대가집의 기둥 같은 재목으로 많이 쓰였고, 가구, 기구재, 특히 이남박, 합지 등의 재료로 쓰였다.

경도잡지의 제택도에는 전나무에 얽힌 민속 같은 유습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즉, 사대부집, 대문은 높고 키도 커서 보통 사람은 얼씬도 할 수 없었다. 집 대청 앞의 전나무에 시령을 매고 그 남은 가지 끝을 이끌었는데, 흡사 호로양산을 편 듯도 하고 학이 날개를 편 듯하여 아름다웠다는 것이다. 그 유습은 오래도록 전해져, 양반집 대청 앞에 해를 가리는 차일로서 전나무 시령을 매는 유습을 볼 수 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나무는 아름다운 수형이 사랑을 받았으나, 오늘날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성탄절의 장식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나무가 크리스마스에 쓰이게 된 것은 [켈트]민족이 상록수를 신성시하는 풍습에서 온 것이지만, 유독 전나무를 사용하게 된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옛날 북유럽의 어느 숲 속에 사는 나무꾼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숲의 나무를 사랑했고, 숲의 요정과 어울려 잘 놀았는데, 밖에 나갈 수 없는 겨울이 되면 이 소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전나무에 조그만 양초를 걸어두어 요정을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의 전날 밤 나무꾼인 아버지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는데, 마침 멀리 전나무 하나에 빨간 불이 켜 있어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냥 숲 속의 나무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방을 살펴보니 다시 멀리 불이 켜 있는 전나무가 있어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되풀이하다 보니 마지막 불 밝혀진 곳이 집 앞의 전나무에 딸이 밝힌 촛불이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으며, 요정들이 인도했던 것이다. 이 전설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전나무에 불을 밝히고 각종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꾸미며 나무 밑에 선물 꾸러미를 쌓아 두었다가 이브를 맞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밤에 사람을 맞을 때는 전나무 가지나 소나무 가지에 양초를 세워서 현관으로 마중 나가는 풍습이



있다고 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맞는 뜻으로 촛불을 밝힌다는 설도 있다. 전나무는 양쟁이고 수형이 아름다운데 비해, 수명은 280~300년으로 추정되나, 우리나라에는 500년을 넘긴 전설이 담긴 노거수들이 여럿 있다.

해인사의 학사대에 있는 두 아름이 넘는 전나무 노거수는 신라 때 최지원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여기에 꽂아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그 후에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돌아나서 자라 오늘날의 바로 이 전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인리에 있는 높이 29m, 둘레 3m나 되는 1,200년 된 노거수는 신라 진흥왕 때 진각국사가 만연사 창건시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 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여성전리에 있는 높이 42m, 둘레 3.5m나 되는 수령이 300년이지만 얽힌 내력으로 미루어 훨씬 나이 먹은 이 나무는 고려 예종 66년에 충남 은진군 관촉사의 스님이 해명대주선사가 이곳에 와서 명주사를 창건하고 기념으로 심었다고 하며, 현재도 신도들이 가운을 기도 드리는 기도목이 되어 있어 절에서 부처님 외에 섬김을 받는 이 변의 나무라는 것이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의 50m에 3m인 30년 된 노목은 잎의 발아 여부에 따라 풍흉을 판단한다는 농민의 소망이 걸린 나무로서, 아들이 없는 사람이 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어 섬김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 고흥군 문덕면 죽선리의 500년 된 노목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승전을 빌었던 나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로 전승목으로 받들고 있다.

∴ 피나무 이야기

“십리 절반 오리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방귀뀌어 뽕나무~, 입 맞춘다 쪽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 예산지방 「나무요」 민요 가사이다. 여기서 피나무는 칼로 베어 피나무가 아니라 껍질 피의 피나무(皮目)로 순수 한글이며, 중국명은 은목(殷木)이다.



나무의 껍질이 나무의 이름이 될 만큼 껍질의 섬유질이 강인하고 삼베보다 더 질기며 물에도 잘 견디어 옛날 우리 생활에 크게 활용되어 왔다. 나무껍질로서 기와 대신 지붕을 잇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 내피의 섬유로 천을 짜서 술이나 간장을 거르는 자루를 만들었다. 포대를 만들고 지게의 등받이로도 사용했다. 노끈, 새끼, 로프로도 중용했다. 어망이나 그물을 짜기도 했는데, 피나무 어망은 큰 고기용 어망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보기 힘든 미투리도 만들었다. 풀망태나 두메에서는 약초 캐는

망태도 피나무섬유로 만들었다. 지계의 동바로도 즐겨 사용했고, 북부지방에서는 샷자리를 엮기도 했다.

피나무의 목재는 결이 곱고 연하며 가볍고 잘 마르므로 집기류나 조각재로



도 크게 이용되었다. 특히 피나무로 만든 칼도마는 부자집 부엌에만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피나무는 섬유가 부드럽기 때문에 칼로 두드려도 섬유가 잘 떨어져 나오지 않아서 음식에 나무의 섬유가 섞여 들어 갈 염려가 없기 때문이란다. 물론, 서민들의 부엌에서는 소나무로 만든 칼도마를 썼다. 유명한 울릉도산의 섬피나무 바둑판은 물론, “트지 않은 소반(밥상)은 피나무상이 아니면 행자상이다”하고 할 만큼 상재료로도 유명하다.

특히 북방에서는 대나무가 없어 쌀을 이는 데는 조리 대신 주로 이남박을 사용했는데, 이남박의 재료로 피나무를 사용했다. 맷돌질할 때 쓰는 망합지나 합지박 등은 오늘날 양은양푼에 쫓겨 민속박물관이나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수 있지만, 모두 피나무의 민예품들이다.

피나무는 종류가 많다. 보리수(菩提樹), 열대에 자라는 불교의 성수(聖樹)와 잎의 생김이 흡사하여 한대지방에서는 피나무 일종인 염주나무와 보리자나무를 보리수라 하여 사찰 주위에 심은 후 신성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나그네’에 나오는 보리수는 불교와 관련 있는 보리수가 아닌 유럽 피나무인 ‘린덴 바움(Linden baum)’이다.

베를린의 유명한 ‘린텐바움’의 가로수는 독일인이 얼마나 이 나무를 사랑하는가를 말해준다. 독일에서는 7월을 ‘린텐의 달’이라 하여 피나무꽃을 따서 차나무 잎 대신 다려 차로



마시는 풍습이 있다. 이것을 린덴데이(Lindenday)라 한다. 이는 피나무가 훌륭한 밀원식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 신화에 피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옛날 프리지아에 신앙심이 돈독한 ‘보오시스(Bausis)’라는 할머니와 필리몬(Philemon)이라는 할아버지 부부가 살았다. 어느 날 여행자로 변신한 제우스와 그 아들 헬메스가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왔다. 사람들은 모두 여행자를 냉대



했으나, 이 노부부만은 진심으로 그들을 접대했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소원을 물었는데, 노부부는 ‘이제까지 사이 좋게 살았으니 죽을 때도 함께 같이 죽었으면 합니다.’라

고 말했다. 세월이 지나 그들은 소원대로 함께 죽어 할머니는 피나무로, 할아버지는 참나무로 변하여 오늘도 프리지아 언덕에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참나무를 남신(男神), 피나무를 여신(女神)이 깃든 나무라 하여 신성시하고 있다.

∴ 주목 이야기

주목은 이름 그대로 수피나 재목이 모두 적갈색으로 붉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강원도에서는 적목(赤木), 경기도에서는 경목(慶木), 제주도에서는 노가리랑 또는 저목이라 하며, 중국명을 따서 적백(赤柏)이라고도 부른다. 왜 지역에 따라 방언이 많은가?

그것은 주목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친숙하게 쓰였음을 말해주는 것도 된다.

주목은 우리나라 심산, 해발 1천m 이상 북쪽 능선에 자생하고 있는 생장이 매우 느린 음수로 충북 단양의 소백산 산정의 주목군락지가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강원도 홍천의 수타사 경내에는 어느 스님이 꽃은 지팡이가 짝이 나 자란 것이라고 전해지는 500년 된 노목이 있으며, 강원도 정선군 동면 간리에는 1백50년 된 높이 15m, 흉고둘레 2.5m의 노목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한라산,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치악산, 덕유산, 발왕산, 화악산, 설악산, 울릉도 등에 자생하며, 설악산에는 흔히 ‘카라목(가라목)’이라 일컬어 정원수로 즐겨 심어지는 눈주목이 자생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주목 외에도 주목의 일종인 잎이 더 넓은 화솔나무도 있어 모두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주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에도 분포하고 있어서 공통된 민속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붉다하여 적백송(赤柏松), 자백송(紫柏松), 의기송(依奇松) 등으로 부르며, 일본에서는 그 용도에서 얻어진 이름인 이지이(一位)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성지(盛志)에 보면 주목은 향기가 있어 귀한 나무이며, 관을 만들면 매우 비싸다고 했다. 나무는 벌목하면 마를 때 쪼개지는 성질이 있으나, 땅에 들어가면 도로 아물어 굳기가 돌 같다고 했다.

동집(東輯)에도 주목의 질이 돌처럼 굳고 치밀하며 탄력이 풍부하고 향기가 있으며, 빛이 아름다워서 재목으로는 최고라는 것인데, 향나무와 함께 상류층의 가장 귀한 관재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옛날부터 오늘까지 불교계에서는 불상이나 염주를 만드는데, 옛날의 수도승은 돌과 같이 굳은 이 나무로 부처를 깎으면서 자신을 수행했던 것이다.

또, 뒤틀리지 않고 습기에도 강하며, 문지르면 광택이 나므로 고급 가구나 기구재로 귀히 쓰였는데, 문갑, 필현갑, 담배갑, 바둑판, 장기판, 단장, 얼레빗 등을 만들었다.

주목이 품위 있는 가구나 기구재로 쓰이는 이유는 그 빛이 붉어서 다른 목재에서는 보기 드문 귀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붉은 빛은 악귀를 쫓는다는 주술적인 벽사의 민속이 신앙처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주술적인 효력을 믿는 심리적인 작용도 다분히 컸던 것 같다.

특히 주목은 장수하는 나무로서, 노인들은 주목단장(지팡이)을 짚고 다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동시에 벽사에 힘입어 무병하게 연년익수 한

다고 믿어 위안도 받았다는 것이다.

주목단장을 선사하는 것은 효도인 동시에 장수를 기원하는 뜻도 되었다고 한다.

또, 홀(笏)을 만드는 나무이기도 했는데, 이 품속은 당나라에서 조견 때 오위(五位) 이상의 고관이상아의 홀을 사용했지만, 상아가 없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향나무나 주목으로 이를 대신했는데, 일본에서는 주목으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어서 이 나무를 이지이(一位), 즉 가장 귀한 나무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 귀히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누족은 ‘타루마니’라 하며, 활(弓)이 되는 나무라 하여 ‘구네니’ 라고도 하는데, 주목의 탄력을 이용하여 가지로 나무 활을 만들어 사용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아이누족은 수렵민족인 만큼 그들에게는 활이 홀만큼이나 귀한 가치를 지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이누나 중국이나 일본 모두가 첫째 가는 귀한 나무로 대접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주목은 가을에 빨강계 열매가 익는데, 맛이 달므로 아이들이 즐겨 따 먹는데, 특히 아이누족은 건강에 좋다는 신앙적인 민속이 있어 약으로 상용하고 한다.

영국에서도 활을 만들었다고 하며, 영명을 Yew라 한다. 이는 활을 뜻하

며, 학명의 *Taxus*는 활(Taos)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재로도 긴히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묘지에 흔히 심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약으로 통경,

이뇨약으로 잎을 사용했다. 그러나 잎과 씨에는 유독성분이 있으므로 주의할 요한다. 유럽에서도 민간약으로 열매는 설사 및 기침약으로 쓰고, 잎은 구충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끔 중독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옛날부터 주목 씨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을 말해주는 것은 유명한 희곡, ‘햄릿’에서 선잠이든 왕의 귀에 동생인 ‘구로테이스’가 작은 병의 독약을 부어넣어 죽게 하는데, 이 독이 바로 유럽 주목의 씨에서 얻은 것이란다. 이쯤 되면 주목 씨는 경계를 요하는 유독식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주목으로부터 추출한 탁솔이라는 항암물질로 인해 고통스러운 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지, 그래서 바로 경이로운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주목이 아닐까.